

#플라톤

- 플라톤의 교육관(상기설 : 교육이란 철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망각했던 보편적인 진리를 상기해 낼 수 있도록 돕는 과정, 현상계로부터 이데아계로 눈을 돌리게 함)
- 이 계급의 분류는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후에는 세습적으로 상속하여 갈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능력에 따라서 계급의 이동은 가능한 것이다.
-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 특성을 갖고 태어남 BUT 누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교육 시킴-중간에 수호자 선발-또다시 그중에서 통치자 선발
- 국가의 발생근거는 국가를 세우려는 인간의 추진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나약함에 있다. 인간은 혼자서는 특정한 활동에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분업적이다.
- 사실상 귀족정, 전체국가(철인들이 번갈아 가며 나라를 다스림)
- 이데아는 모든 사물 속에 존재함→이데아의 수=사물의 개수, 이데아는 보편적인 존재
- 현상의 세계에서 행복이 실현이 가능함→현상의 세계에서 영혼을 이루는 이성, 기개, 욕망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추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되며 정의로운 인간은 행복하다→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대 불행해질 수 없다
- 모든 계층이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특히 통치자계층은 모든 덕 필요)
- 개인과 국가는 독립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루소처럼 공동선 추구)
- 통치자와 수호자는 모두 지식을 갖춰야 한다(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주지주의)
- 도덕은 국가의 존재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존재함 Cf.) 홉스의 도덕은 국가 이후에 생겨난 계약의 산물
- 시민들의 동의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도덕기준이 있음
- 감정과 욕구의 제어를 언급하지 않음, 이성이 기개와 욕망을 지배하고 감정과 욕구와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이 형성됨
- 지식과 정치권력의 결합은 이상 국가의 토대이다
- 이성이 기개와 욕망을 지배하고 조절할 때 정의의 덕!
- 동굴의 비유에서 태양은 선의 이데아
- 인간의 영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됨, 이성이 정욕과 기개를 지배해야 함
- 모든 인간은 사주덕을 다 갖춰야 함. 다만, 강조되는 덕만 다를 뿐→모든 계층이 지혜의 덕 필요
- 현상계 내에는 변화하지 않는 참된 존재가 없음
- 개인에게 물질적 욕구의 억제를 요구함(절제는 모든 계층이 갖추)
- 좋은 원형은 각자의 경험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인식됨
- 모든 구성원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수호계층만
- 철학자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그럼..... 아내랑 재산까지 공유하는데 헌신하지)
- 자기 계층의 일만 충실하면 되지 다른 계층의 일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공자도 마찬가지)
- 우애는 거의 모든 그리스계열이 강조
- 처자식과 재산공유는 통치수호계층만
- 절제란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것(국가적 측면) OR 이성이 기개와 욕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이성과 기개와 욕구가 합의하여 서로 간에 반목과 갈등이 없는 것 → 다수의 미천한 사람의 욕구가 소수의 공정한 사람들의 욕구와 슬기에 의해 제압되는 것
- 두려워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른 소신의 보전과 보전 능력(아리스토 말고 플라톤도 이런 표현 씬) → 용기
- 국가가 안팎으로 가장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 지혜
-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과 '자기 것을 소유하는 것'을 이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 역할분담의 정의
-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우월함(직업의 귀천을 인정)